





대한민국 보물이자 세계의 보물이 된 책 『삼국유사』

【11장을 열며】

고려시대의 승려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너무나 소중한 책이다. 우리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책엔 중요한 역사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많은 신화와 전설이 실려 있다. 『삼국유사』를 통해서 고대시대의 역사, 사상, 문화에 대한 지식과 생각을 넓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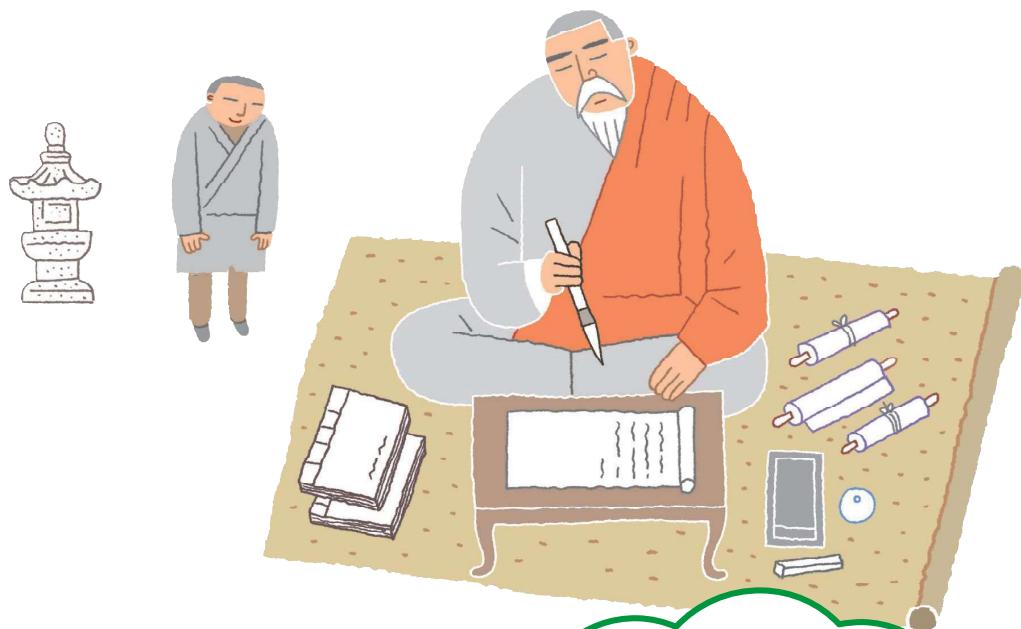
-)
1. 『삼국유사』는 어떤 책일까?
 2. 『삼국유사』 속 역사 인물들
 3.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비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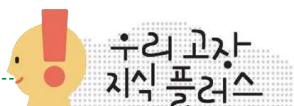
『삼국유사』는 어떤 책일까?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삼국유사』의 저자인 고려시대의 승려 일연에 대해 알아보고, 『삼국유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삼국유사』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연이 남긴 위대한 유산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고장’인 대구광역시 군위군

오늘날 우리나라 각 시와 군은 저마다 브랜드 슬로건이 있다. 고장의 역사, 정체성, 자랑 거리를 몇 글자로 압축한 것이 브랜드 슬로건이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브랜드 슬로건은 ‘삼국유사의 고장’이다. 일연 스님이 군위군에 있는 절인 인각사를 중창하고 이곳에서 입적(스님의 죽음)했으며, 오늘 날에도 인각사에 일연을 기리는 역사유적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브랜드 슬로건이다. 오늘날 군위군에선 삼국유사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참여하여 삼국유사에 관한 지식을 겨루는 행사인 ‘삼국유사 퀴즈대회’가 대표적인 행사다. 2022년에 13회 대회가 열렸다.

고려시대인 1206년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아홉 살 때 집을 떠나 스님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일연이었다.

열심히 공부한 일연은 스물두 살 때인 1227년, 스님들이 치르는 과거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 하지만 일연은 자만하지 않았다.

“나에겐 아직도 공부할 것이 많아.”

이렇게 생각한 일연은 고향 근처인 대구 비슬산에 있는 암자에서 공부하였다. 이어서 고려 곳곳의 절을 찾아다니며 불교를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하였다.

일연은 삶의 많은 시간을 대구와 경북에서 보냈다. 일연이 머물렀던 대구·경북의 절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었던 절인 인홍사, 군위군 인각사, 경상북도 포항시의 오어사, 청도군 운문사가 있다.

일연은 불교사상에 대해 많은 책을 썼다. 이런 책들과는 별개로, 일연에겐 우리 민족과 불교의 역사와 전설을 정리한 책을 쓰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이 꿈을 이루고자 일연은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다.

1277년 무렵부터 일연은 책 쓰기를 시작했다. 몇 년간 쓰고 또 쓰고… 일연이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쓸어放进은 책은 1281년경 완성되었다. 바로 『삼국유사』였다. 우리가 영원히 보존해야 할 위대한 기록유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삼국유사』의 각 편들, 제1권 「왕력」부터 5권 「효선」까지 각 편의 첫 페이지

『삼국유사』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일연이 『삼국유사』에 담고자 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고조선부터 고려 건국 때까지의 역사와 이야기(신화, 전설 등)였다. 둘째는 불교의 전래와 역사, 불교 이야기였다.

‘어떻게 구성해야 독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

책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일연도 그러했다. 일연은 여러 나라의 역사와 이야기를 앞에 넣고, 이어서 불교 내용을 배치하기로 계획했다. 그리하여 『삼국 유사』를 5개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권 「왕력」: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락국(가야), 후삼국 역대 왕의 재위 기록을 연표 형식으로 정리한 것.

2권 「기이」: 삼국시대 이전에 있었던 국가인 고조선, 삼한, 부여의 역사 및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락국, 후삼국의 역사·신화·전설을 모은 것.

3권 「흥법」, 「탑상」: 삼국시대 불교의 전래 및 유명한 절, 탑, 불상에 대한 역사와 이야기를 모은 것.

4권 「의해」: 불교 전파와 발전에 공헌한 승려들의 역사와 이야기를 모은 것.

5권 「신주」, 「감통」, 「피은」, 「효선」: 「신주」는 놀라운 이적을 이뤄낸 승려, 「감통」은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고 실천한 사람들, 「피은」은 조용히 숨어서 살아간 승려, 「효선」은 효도 등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의 역사와 이야기를 각각 정리한 것이다.



『삼국유사』가 ‘우리나라의 국보’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요 문화유산을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대한민국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삼국유사』는 고대 시기 우리 민족의 역사, 종교, 문화, 풍속, 언어, 지리 등의 연구에 꼭 필요한 책이다.

먼저 역사 연구에서 『삼국유사』가 얼마나 귀중한 책인가 하면, 우리나라 책 가운데 최초로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 이야기를 수록한 것이 『삼국유사』다. 또 다른 역사책에는 없는 가야(가락국)의 역사를 신고 있다.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고조선, 가야가 있었던 고대 역사를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 외에 『삼국유사』에는 많은 역사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기록이 고대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다.

문학적 가치도 크다. 일연은 『삼국유사』에 ‘찬기파랑가’ 등 14편의 향가를 실었다. 향가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전기까지 창작되었던 우리 고유의 정형시다. 『삼국유사』 덕분에 우리는 고대의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국유사』에는 여러 나라의 왕, 지도자, 승려에 대한 역사와 전설이 많이 실려 있다. 또 고대 불교 문화재에 대한 많은 기록이 담겨 있으며,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풍속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한 권의 책이 이토록 소중한 자료를, 이토록 많이 담고 있다니! 『삼국유사』는 참으로 ‘우리나라의 귀한 책, 국보’인 것이다.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삼국유사』 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삼국유사』

2022년 11월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유네스코(UNESCO, UN교육과학문화기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 중에서 세계기록유산을 선정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삼국유사』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합니다.’

세계기록유산이란 유네스코가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책, 문서, 편지와 같은 역사 기록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것이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책인『삼국유사』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고려, 조선시대에 여러 번 목판 인쇄를 통해『삼국유사』를 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전해지는『삼국유사』는 인쇄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 몇 가지 판본이 있는데, 2022년 유네스코는 연세대학교박물관 등이 소장한 3개의『삼국유사』판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연세대학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삼국유사』판본은 조선시대인 1394년 오늘날 경상북도 경주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2년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쓴 책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사례는 조선시대에 이순신이 쓴 일기인『난중일기』, 허준이 쓴 의학책『동의보감』이 있었다. 이어서 일연이 세계기록유산을 남긴 저자가 되었다.



또 하나의 보물『삼국사기』

『삼국사기』는『삼국유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고대 역사 연구에 꼭 필요한 책이다.『삼국사기』는 1145년경 김부식 등이 고려 왕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시대에 관한 역사 책이다. 나라에서 만든 역사 책인 만큼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의 역사와 중요한 인물들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역사책이다.『삼국사기』와『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고대 역사를 잘 알 수 없었을 것이다.『삼국사기』 역시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2

『삼국유사』 속의 역사 인물들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삼국유사』에는 왕, 신하, 장수, 승려, 보통 백성 등 수많은 인물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그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며 후세에 이름을 남겼다. 『삼국유사』 속 인물 중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고대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혀 보자.



신라 초기 경북 곳곳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삼국유사』 미추왕 이야기에는 이서국이라는 나라가 신라를 공격했을 때 이미 죽은 미추왕이 신비한 힘으로 이서국 군대를 물리쳤다는 전설이 실려 있다. 이서국은 삼국시대 초기 오늘날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나라였다. 비슷한 시기에 경상북도 땅에는 경주의 사로국(나중에 신라로 발전) 외에 청도군 지역에 이서국, 경산시 지역에 압독국, 영천시 지역에 골벌국, 의성군 지역에 조문국, 상주시 지역에 사벌국 등 여러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들은 훗날 강성해진 신라에 의해 병합되었다.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

『삼국유사』 제2권 「기이」 편에 등장하는 최초의 나라는 고조선이고, 최초의 왕은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이다. 『삼국유사』 속 고조선 건국 신화는 다음과 같다.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무리 삼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왔고, 환웅은 곰에서 여자의 몸으로 변한 웅녀와 혼인하였다. 웅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단군왕검이었다. 단군왕검은 고조선을 세워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이야기다. 신비한 내용이 많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단군신화라고 부른다.

진홍왕, 선덕왕, 태종무열왕 등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와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신라이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왕조와 신라 불교의 역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신라 제24대 진홍왕은 15세 때 즉위해 신라 영토를 크게 넓힌 것으로 유명하다. 신라 최초의 여왕인 제27대 선덕왕은 앞날을 미리 내다볼 줄 아는 슬기로운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선덕왕 외에 2명의 여왕인 진덕왕(제28대), 진성왕(제51대) 이야기도 실려 있다.

신라 29대 태종무열왕은 삼국통일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그 뒤를 이은 신문왕은 삼국통일을 완성하였다. 『삼국유사』에는 삼국통일의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백제 무왕의 전설을 간직한 익산 미륵사지

무왕, 의자왕

백제의 왕 중에서 『삼국유사』에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왕은 제30대 무왕, 제31대 의자왕이다. 무왕은 어려운 시기에 즉위하여 백제 중흥에 힘을 쏟았던 왕이다. 무왕은 백제를 대표하는 큰 절인 미륵사를 세웠는데, 『삼국유사』에는 미륵사 창건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의자왕은 백제 마지막 왕이다. 『삼국유사』에는 의자왕이 당나라와 신라의 협공으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신하들과 대책을 의논하는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경순왕, 견훤, 왕건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신라의 마지막 왕인 제56대 경순왕과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이야기를 많은 분량으로 수록했다. 고려가 경순왕이 다스리던 신라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병합하고, 무력으로 견훤이 세운 나라인 후백제를 물리쳐 후삼국을 통일한 역사를 자세히 알리기 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려와 후백제는 오늘날 대구·경북 지역에서 여러 번 큰 전투를 벌였다. 927년 대구의 팔공산 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승리했고, 930년 고창(지금의 경북 안동시) 전투에서는 고려가 승리했다. 이어서 고려는 936년 오늘날 경북 구미시 지역에서 벌어진 일리천 전투에서 후백제에 최후의 승리를 거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양지가 조각한 사천왕사의 녹유신장벽전(왼쪽)과 복원품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킨 승려들



황룡사 9층 목탑

황룡사 9층 목탑은 약 80m 높이의 큰 탑으로 신라 불교의 융성함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나라로 발돋움하려는 신라의 염원을 담은 탑으로, 백제의 장인 아비지가 신라로 건너와 탑의 건축을 주도했다고 전해진다. 안타깝게도 황룡사 9층 목탑은 고려시대인 1238년 몽골의 침입 때 소실되었다. 경주 황룡사지 인근 황룡사역 사문화관 1층에는 1/10 크기로 재현된 황룡사지 모형탑이 전시되어 있다.

원광, 의상, 원효

『삼국유사』에는 많은 승려 이야기가 나온다. 그중 원광, 의상, 원효가 유명하다. 원광은 화랑도의 이념이 된 세속오계를 만든 승려다. 의상은 당나라에서 불교 공부를 하고 돌아와 신라에 많은 절을 세우고 널리 불법을 전하는 데 힘쳤다.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유명한 원효는 스스로 소성거사라 칭하며 노래와 춤을 통해 대중들을 교화하는 데 애썼고, 『대승기신론서』, 『금강삼매경론』 같은 저술을 통해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불교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예술 재능이 뛰어났던 승려인 양지, 충담, 월명

『삼국유사』에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승려 이야기도 실려 있다. 불상 조각과 글씨(서예)에 능통했던 양지의 작품으로는 경주 사천왕사 터에서 발굴된 녹유신장벽 전이 전해지고 있다. 문학 재능이 뛰어났던 승려에는 충담과 월명이 있다. 충담은 경덕왕의 부탁으로 왕과 신하, 백성이 모두 자기 본분을 다하면 온 나라가 편안하다는 뜻을 담은 향가인 〈안민가〉와 화랑 기파랑을 추모하여 지은 〈찬기파랑가〉를 남겼고, 피리를 잘 불어 달도 멈쳤다고 하는 월명의 작품으로는 죽은 누이를 기리는 〈제망매가〉가 전해지고 있다.



이차돈의 순교 장면이
부조로 표현된 백률사 석당

왕 못지않게 유명한 『삼국유사』 속 역사 인물

왕의 두 동생을 구출한 신라의 충신 김제상

신라를 대표하는 충신 김제상은 목숨을 걸고 신라 제19대 놀지왕의 두 동생 보해와 미해를 고구려와 왜(일본)에서 구출하였다. 그는 418년 고구려에 가서 고구려 왕을 설득하여 인질로 잡혀 있던 보해를 구출한 다음, 다시 미해를 구출하기 위해 왜로 떠났다.

신라에서 왜로 망명했다고 하며 왜왕의 신임을 얻은 김제상은 병사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미해를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자신은 불잡히고 말았다. 왜 왕은 그를 신하로 삼기 위해 희유와 협박을 했지만 김제상은 결코 왜의 신하가 될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끝내 죽임을 당하였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그의 이름이 박제상, 신라 왕자 미해는 미사흔으로 나온다.)

불교 전파를 위해 순교한 이차돈

신라에 불교를 처음 전한 사람은 고구려 승려인 아도였다. 불교가 처음 전해진 신라 땅은 오늘날 경상북도 구미 지역이었다. 신라의 불교 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삼국유사』에 이차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염족이다.

신라 제23대 법흥왕은 불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려 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때 이차돈은 법흥왕을 대신하여 절의 창건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신하들의 주장으로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삼국유사』에는 그가 죽자 사방이 침침해지고 땅이 진동하면서 꽃비가 내렸다고 하였다.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후 불교는 신라 국교로 공인되었다.

3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비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삼국유사』에는 중요한 역사 기록과 더불어, 많은 신화와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엔 흥미롭고 인상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오늘날에도 유명한 몇 가지를 읽어보도록 하자.



하늘이 신라 왕에게 선물한
마법 피리, 만파식적



동해바다 속 왕의 무덤 '대왕암'

신라 제30대 왕인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한 왕이다. 그는 죽기 전 '나를 화장한 뒤 유골을 동해에 묻으라. 용이 되어서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을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왕이 죽은 후 유언에 따라 왕을 동해의 바위 아래에 장사지냈다. 해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수중 왕릉을 대왕암이라고 한다. 현재 대왕암은 사적 제158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 경주에서 대왕암 가는 길에는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 세운 절인 감은사 터가 있고, 국보로 지정된 두 기의 큰 탑이 남아 있다.

만파식적은 '모든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피리'라는 뜻이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피리인 만파식적의 이야기는 신라 제31대 왕인 신문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라 제31대 신문왕은 아버지인 문무왕이 죽은 후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감은사라 는 절을 세웠다. 어느 날 바다를 지키는 관리가 신문왕에게 달려와 말했다.

"동해에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감은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왕이 바다로 나가 사신을 시켜 살펴보니 거북이 머리처럼 생긴 산 위에 대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낮에는 돌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대나무가 하나로 합해지자 천지가 진동하며 비바람이 몰아쳤고 7일 동안 어두웠다. 바람이 평온해진 후 신문왕이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나타나 말하였다.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평화로울 것이다."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었더니 과연 용의 말대로 적병이 물러가고, 가뭄 때는 비가 내리고, 태풍 때는 바람이 잣아들어, 만파식적이라 부르고 나라의 보물로 삼았다.

효소왕 때 이 피리를 잊어버렸는데, 되찾는 과정에서 말갈족에게 납치된 부례왕이 살아 돌아오는 등 기적을 선보여 이름을 '만만파파식적'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신라 군인 거타지의 신기한 모험

『삼국유사』에는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도 여럿 실려 있다. 그중엔 신라 사람 거타지의 이야기가 있다.

신라 제51대 진성왕 때의 일이다. 신라 왕자가 당나라 사신으로 가는데 활을 잘 쏘는 병사 50명이 호위하여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

배가 지금의 백령도 인근인 곡도 근처를 지날 때 풍랑이 크게 일어나 섬에 피신하게 되었다. 그때 일행 중 점을 잘 치는 사람이 말했다.

“이 섬에 신령스러운 뜻이 있으니 제사를 드려 무사 항해를 기원합시다.”

일행이 제사를 드린 날 왕자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활 잘 쏘는 한 사람을 이 섬 안에 머무르게 하면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 말에 따라 제비뽑기를 하기로 하고, 나무 조각 50개에 호위 병사 이름을 써서 물에 띄우니, ‘거타지’의 이름을 적은 나무 조각이 물에 가라앉았다.

홀로 섬에 남은 거타지 앞에 한 노인이 뭇으로부터 나와 말했다.

“나는 서쪽 바다의 신이다. 매번 한 요사스러운 사람이 주문을 외워 내 가족을 해치고 있다. 그대가 그놈을 물리쳐다오.”

다음 날 거타지는 섬에 나타난 요사스러운 사람을 향해 활을 쏘았다. 활을 맞은 사람은 곧 늙은 여우로 변하더니 땅에 떨어져 죽었다. 이 일이 있은 후 거타지는 노인의 딸을 아내로 맞았고, 신라로 무사히 돌아왔다.



『삼국유사』를 읽고 싶다고? 간단하지!

『삼국유사』를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책으로 읽는 방법, 인터넷으로 읽는 방법이다. 원래 『삼국유사』는 한자로 쓰여졌지만, 많은 학자들이 한글로 풀어 쓴 『삼국유사』가 시중에 나와 있다. 인터넷으로 보려면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www.history.go.kr)에 들어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메뉴를 선택하면 한글로 번역된 삼국유사를 읽을 수 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삼국유사』 외에 『조선왕조실록』 등 많은 역사기록물을 검색하고 읽을 수도 있다.



슬프게 우는 앵무새 & 어미 꿩과 사냥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전설의 동물 용을 비롯하여 호랑이, 거북 등 동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도 있다.

신라 제42대 흥덕왕이 즉위하고, 얼마 안 되어 어떤 신하가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앵무새 한 쌍을 가지고 왔다. 왕이 궁궐에서 키웠는데 오래지 않아 앵무새 암컷이 죽었다. 홀로 남은 수컷은 애처롭게 울기를 그치지 않았다.

흥덕왕은 사람을 시켜 앵무새 앞에 거울을 걸게 하였다. 앵무새는 거울 속의 새를 보고 짹이 다시 돌아온 걸로 생각하여 그 거울을 쪼았다. 그러다가 거울 속 새가 자신임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 앵무새는 슬피 울다가 죽고 말았다.

신라 제31대 신문왕 때 한 신하가 경상도 동래 지방의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던 길에 어떤 사냥꾼이 길들인 사냥매를 이용해 꿩을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꿩을 쫓던 매가 어떤 봉우리를 넘어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 신하가 궁금하여 매의 행방을 찾다가 어느 동네 우물 곁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매를 발견했다. 우물 안을 보니 어미 꿩이 두 날개를 벌려 새끼 두 마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었다. 나무에 앉은 매는 꿩을 죽은하게 여겼는지 감히 꿩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신하는 이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그 우물 근처에 영취사라는 절을 세웠다.



다음은『삼국유사』서문의 일부입니다.
이 서문을 바탕으로『삼국유사』의 특성과 의의를 생각해 봅시다.

무릇 옛날 성인들이 예와 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과 의로 교화를 펼치고자 할 때는 괴력난신(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제왕이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물건을 받게 된다는 것에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는 법이다. 그런 후 능히 큰 변화를 타고 군왕의 지위를 장악하여 제왕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

(중략)

요 임금은 어머니가 임신한 지 열네 달 만에 태어났으며, 한 고조 유방은 큰 연못에서 용이 교합하여 낳았다. 이로부터 그 뒤의 일들을 어찌 이루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삼국의 시조가 모두 다 신비하고 기이한 일로 탄생한 것을 어찌 괴이하다 하겠는가? 이 것이 「기이」 편을 모든 편의 첫머리로 삼는 까닭이며, 그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다.

괴력난신의 뜻을 알아보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고 또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삼국유사』의 서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은 '괴력난신'일 것입니다. 괴력난신(怪力亂神)은 '괴이한 힘과 어지러운 귀신에 관한 일'이라는 뜻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을 말합니다. 역사서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 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은 기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연은 신비하고 기이한 이야기의 경우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건국한 제왕들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일을 기록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삼국유사』에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은 것은 일연의 이러한 관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롭게 재해석되면서 소설이나 영화 등으로 다양하게 변용되고 있습니다.

일연이『삼국유사』첫머리에「기이(紀異)」편을 둔 의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서문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중국의 제왕들이 나올 때 있었던 것과 같은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이 삼국의 시조가 나타날 때도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도 신성한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역사와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연은 신비하고 기이한 이야기들이 있는 「기이(紀異)」 편을 첫머리에 둘으로써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지만 일연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뒤지지 않는 역량과 자주성이 있음을 『삼국유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교실 밖 대구·국사체험

삼국유사 유적을 찾아서!

대구와 경상북도에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사건과 이야기의 무대가 된 곳이 많이 있다. 특히 경상북도 경주시에 많이 있다. 또 대구·경북엔 『삼국유사』를 쓴 일연이 머물렀던 곳이 여럿 있으며,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을 기념하는 곳도 있다.



비슬산

비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녕군에 걸쳐 있는 높은 산이다. 비슬산은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이 머물렀던 산이다. 또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 '포산 이성'(포산에 사는 두 사람의 성인 이야기)의 무대가 된 곳이다. 여기서 포산은 비슬산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인각사

일연은 생애의 말년을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있는 절인 인각사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입적하였다. 인각사에는 일연의 승탑인 보각국사정조지 탑과 그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한 비석이 있다. 인각사가 있는 지역의 행정지명은 2020년까지 '군위군 고로면'이었는데, 2021년부터 '군위군 삼국유사면'으로 바뀌었다. 인각사에서는 일연이 입적한 날인 음력 7월 8일에 일연을 기리는 다례재를 매년 올리고 있다.





삼국유사테마파크

『삼국유사』에 담긴 문화 콘텐츠를 시각화, 촉각화한 종합 테마파크로서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전시 및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다. 신화서클영상관, 일연대선사관을 비롯해 삼국유사관과 설화체험관 등으로 이루어진 가온누리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룡 슬라이드와 해룡물놀이장 등의 놀이시설, 국궁장 등 체험시설, 그리고 만파식적과 지철로사자상 등의 조형물과 산책 코스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삼국유사』에 있는 많은 역사 사건과 이야기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불국사, 석굴암, 계림(김알지 전설이 전해오는 곳), 월성(신라시대 궁궐) 등의 유적지가 경주에 있다. 이런 유적지 외에 신라의 찬란한 문화재를 구경할 수 있는 경주국립박물관에서도 『삼국유사』에 나오는 유명한 종인 성덕대왕 신종 등 여러 문화재를 구경할 수 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삼국유사』 이야기를 주제로 한 공원 중에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이 있다. 이곳 전시관인 '귀비고' 명칭은 연오의 비단을 보관했던 창고에서 따온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제8대 아달라 왕 때 살았던 연오랑, 세오녀 부부의 신비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테마공원에 가면 시원하게 펼쳐진 동해바다를 볼 수 있다.